

**1. <공약 실천계획>**

관리번호 **8-①**

<b>상위공약명</b>	<b>북천-횡천-청암-악양-화개 무지개 프로젝트</b>															
<b>실행공약명</b>	<b>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사업</b>															
<b>사업구분</b>	임기구분		사업구분		사업주체				예산구분			이행단계				
	임기 내	임기 후	신규	계속	국가	도	군	민간	예산	비예산	보류 폐기	일부 추진	정상 추진	이행후 계속 추진	완료	이행률
	○		○				○		○					○		100%
<b>주관부서</b>	문화관광실				담당자				박 밀			전화번호		880-2374		

**■ 목 표**

-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레일바이크 시설 조성

**■ 사업개요**

- 사업기간 : 2016년 ~ 2018년
- 사업량 : 레일바이크 L=5.3km (레일바이크 70대, 풍경열차 1대)
- 사업비 : 7,000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총액	기투자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년 이후
계	7,000	0	0	0	3,800	1,000	2,200	0
국비	2,100				1,000		1,100	
도비	3,330				2,000	1,000	330	
군비	1,570				800		770	
민자	0					-	-	-

**■ 연차별 추진일정 및 목표**

구분	주요 추진계획 및 목표	목표 달성 여부
2015년	사업기본계획 구상	달성 ('15. 1월 용역 착수)
2016년	폐철도 활용 기본구상용역 완료 실시설계용역 시행	달성/ 기본구상완료, 실시설계 추진중 ( '16. 12월 용역 공정율 90%)
2017년	사업시행 및 완료, 운영(5월)	'17.5월 개통식, 현재 정상운영 중 (개통이후 월평균 탑승 관광객 5천명 )

## 2. < 공약 이행현황 >

### ■ 지금까지 추진 실적 (공약 이행을 : 100%)

- '16. 1. : 폐철도 활용 기본구상용역 시행
- '16. 6. : 폐철도 활용 기본구상용역 완료
- '16. 6. : 실시설계용역 시행
- '17. 1. : 레일바이크 및 풍경열차 제작
- '17. 2. : 사업시행
- '17. 5. : 개통, 정상운영
- '17. 11. : 현재까지 월평균 6천명 탑승

### ■ 관련 사진 및 자료

경남도민신문
2017년 03월 10일 (금)  
07면 사회

## 하동 북천~양보 레일바이크 5월 본격 운행

### 꽃양귀비 축제 맞춰 개통...편도 5.3km 4인승·2인승 운행



정황을 보이고 있다.  
군은 또 북천역~양보역 중간지점에 있는 1.2km의 이명터널에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착수하고, 북천역 갤러리, 커뮤니티센터, 주차장, 화장실 등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.

군은 내달 말까지 이들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5월 초 레일바이크 시험운행을 거쳐 꽃양귀비축제 개막 직전인 5월 10일부터 본격 운행할 계획이다.

군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날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관련부서 실과소장과 담당계장 등 20여명이 북천역~양보역 5.3km를 도보로 이동하며 선로 주변 위험요소, 경관조명 설치 실태, CCTV 및 건물목 안전시설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.

윤상기 군수는 “레일바이크는 남녀노소 모두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”며 “오늘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부분은 조속히 개선·보완해서 5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윤상기 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은 레일바이크 현장점검에 앞서 북천면사무소에서 농업기술센터와 북천면, 코스모스·매밀꽃영농조합법인 등 축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꽃양귀비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축제현장을 둘러봤다.

윤상기 하동군수가 북천 꽃양귀비축제가 열리고 있는 북천역 폐철도에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있다.

하동 북천 꽃양귀비축제가 열리는 오는 5월 경전선 복선화로 폐선된 옛 북천역~양보역 구간에 관광 테마형 레일바이크가 본격 운행될 전망이다.

하동군은 5월 12~21일 10일간 북천면 직전리 일원에서 열리는 제3회 꽃양귀비축제에 맞춰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를 정상 운행키로 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.

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사업은 경전선 복선화와 함께 폐선된 옛 북천역~하동읍 섬진철교 22.3km 구간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체결한 폐철도 시설물 활용 및 관리 협약에 따른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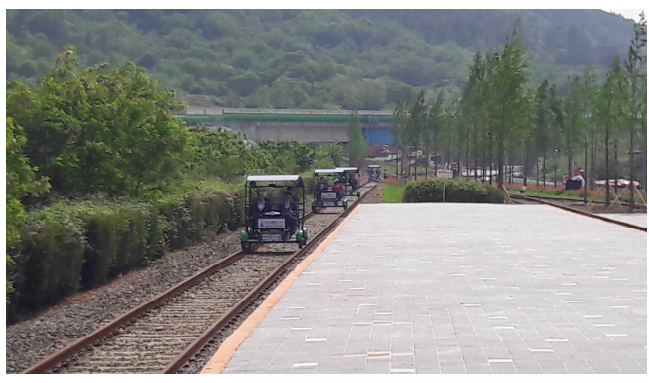
이에 군은 2019년 완공 목표로 옛 북천역~양보역 레일바이크와 북천·양보·황천·하동역 등 4개역사 및 하동역~섬진철교 구간의 공원·산책로·주차장·카페 등을 조성하는 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.

특히 군은 이들 사업 중 옛 북천역~양보역 편도 5.3km의 레일바이크를 북천 꽃양귀비축제 개막에 맞춰 개통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.

북천역~양보역 구간에 운행될 레일바이크는 4인승 45대와 2인승 25대 등 최신형 레일바이크 70대이며, 관광객 수송을 위한 토마스 열차 1대도 도입된다.

군은 이를 위해 레일바이크와 기관차 1량·객차 2량을 갖춘 이용객 수송용 열차 제작과 함께 차고지·정비고·승강장 등 각종 부대시설 설치사업에 들어가 현재 20%의 공

이동윤기자  
15.9 X 20.1 cm



## ■ 향후계획

- 주변 편의시설 보완 및 풍경열차 업그레이드
- 터널 경관조명 추가 설치
- 양보역 주변 라벤더 공원 조성, 선로주변 경관 개선 추진